

# 익산시, 탄소중립 동참

### 기후변화 늦추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실천 특별세션 개최, 의견 공유·협력방안 토론

익산시가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과 손을 잡고 2050 탄소중립 동참을 선언했다. 시는 24일 한정에 환경부 장관, 전례 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국내 243개 지자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올해 PA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은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대면

과 비대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가인 IPCC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현용 시장은 "태양에너지와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며 "실생활의 경우 1회용품 사용금지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탄소 중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으로 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 농산물가공센터, 상생효과 '톡톡'

### 익산시 안전하고 다양한 가공제품 시민·농업인에 큰 호응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으로 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공동 이용으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도록 해 소득증대를 돕고 있다.

현재 센터 내에는 잼류·음료류·분말류·엑상차류 등 총 14개 유형 36종의 품목이 가공되고 있으며 딸기잼, 참기름 비트 음료, 고구마 빵, 새싹보리 분말, 볶음 팥콩 등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농부가 담은 더 유익한 만찬" 공동 브랜드 사용으로 로컬푸드매장과 전 북우수상품관, 농협하나로마트, 익산물 등에 입점 판매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도 납품 중이다.

특히 빵, 잼, 과채주스 등 7종의 경우 HACCP 인증 취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상품 경쟁력을 갖추어 학교급식 입

점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밖에도 품목 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포장재 식품표기사항 등 식품위생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각자 생산한 농산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가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가공창업보육 교육과정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명의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농산물센터 이용은 유용 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

주실래농장의 황규선 씨는 "고구마로 작목을 전환하여 판로를 모색하던 중 가공창업보육교육의 가공실습제품인 고구마빵을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좋은 원료로 맛있는 고구마빵을 만들어 전국에 고구마 고장 익산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 가져

### 신규 2개사 인증서 수여

군산시는 새만금신항합원에서 유망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2021년 유망 강소기업 신규 2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심층평가를 통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주)성현 ▲(주)퓨코다.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주)성현은 두산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1차 협력업체로 신재생 발전·환경 플랜트 및 해양가자재 전문업체이며,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퓨코다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 제조 생산한 전문기업으로 일부를 중심으로 유럽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

한 군산의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수요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K-주사기로 널리 알려진 (주)퓨코다 파마텍을 비롯해 총 17개사가 선정됐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기술혁신,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 혁신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받게 된다. 또 지역의 연구기관과 R&D 협력 이터넷을 발굴하고 우수 기술사예도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이 매출액과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8.2%·2%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유망 강소기업은 각각 12%·10.8%의 성장세

를 보였으며, 특히 (주)제이아이테크, (주)이삭박차 등 5개사는 새만금산업단지과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시설을 재 투자하는 등 군산경제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기업 성장 협력 방안을 상호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광일 (주)카라 대표는 "도장지그 보관함 공정개선과 시험분석 테스트 등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오수복 수립산업(주) 대표는 "근로자 출퇴근 버스 및 숙소 지원,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 덕분에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 먹거리 총괄 '푸드통합지원센터' 가동

익산지역의 미래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할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센터 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의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농가 조직화·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2022년 푸드플랜 APC를 구축을 통해 학교·공공급식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성공적인 익산형 푸드플랜 실

행을 위해 농민·먹거리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향후 먹거리 위원회 등 참여 주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센터 사무실은 한일 북부청사 농업인화관에 임시로 가동 중이며, 오는 9월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이 완공되면 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전국 최고의 성적으로 선정돼 푸드플랜 APC 등 10개 사업·11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 군산시, 응급헬기 착륙장 건설사업 추진

군산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닥터헬기'라는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다.

응급헬기 착륙장은 시 도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개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3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서지역에는 기존 착륙장 시설이 없이 응급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 없이 전용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응급헬기 착륙장 시설을 통해 상시 착륙이 가능한 안전한 이착륙 공간이 확보되고 등화관제시스템, 풍향기 등을 신규로 설치해 도서 내 응급상황을 비롯, 해양사고에도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중현 보건소장은 "헬기착륙장을 개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착륙장이 없는 도서지역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자 모집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전 검토를 실시한 결과 2개 업체 모두 요건 불충족으로 재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7월 20일까지 60일간 사업기본계획의 재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업체에서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필수 자료 누락 등 사전 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의지가 강한 민영 재공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참여 의향 업체도 기회를 제공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 이등상담센터 운영

군산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나온 4단지(26일, 10:00~16:00), 미룡1단지(27일, 10:00~16:00)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이등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이등상담센터 운영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담과 함께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의 취업 상담, 나운2동, 나운3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이 진행되며 주택관리공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해 분야별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민금융에 대한 상담과 복지, 취업, 신용회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민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금융 관련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 실제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상담하는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하게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